

문 14: 죄가 무엇인가?

답 14: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혹은 어기는 것이다.

성경적 근거: 요한일서 3:4; 야고보서 4:17, 2:10; 로마서 3:23, 4:5

질문 1: 죄는 무엇에 비취볼때 죄로 들어나는가?

질문 2: 법은 누가 만드는 것인가?

질문 3: 하나님의 법은 어떻게 이행되어야 하나?

설명:

죄는 하나님의 법에 비취볼 때 들어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들이 기준이되고 그 기준을 우리는 반드시 만족시켜야 한다. 그 기준은 완전한것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만드신 기준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만드신 분이 아니다. 순종과 불순종의 선택을 통해 나오는 결과인 것이다. 그래서 요한일서 3:4 에서는 불법은 죄라고 했다.

죄는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함으로써 짓는 죄가 있고, 요구되는 올바른 행동을 하지 않음으로 짓는 죄도있다.

죄는 밖으로 드러나는 행동의 죄가 있고, 마음으로 짓는 죄가 있다.

죄는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함으로 짓는 죄가 있고,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야 됴에도 불구하고 외면하는 죄도 있다.

죄는 머리로, 손으로, 발로, 눈으로 지을수도 있다.

죄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음으로 짓는 죄가 있고, 또 사랑하지 않아야 될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짓은 죄도 있다.

죄는 아는 것을 모르는척 함으로 짓은 죄가 있고, 또 모르는 것을 아는척 함으로 짓는 죄도 있다.

죄는 남을 원망할때 짓게되고 남을 시기할때에 짓기도한다.

죄는 내 마음에 거리키는 행동과 생각을 함으로 짓기도 한다.

죄가 죄라고 모르는 것도 죄다.

죄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 자체이다. 하나님이 안계신다라는 것도 죄다.

죄는 나와 하나님 사이의 사랑을 파괴하는 모든 것이며 다른 사람과 하나님과의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도 죄이다.

죄는 하나님의 법을 부족함이 없이 이행하지 못하는 것이다.

죄는 하나님의 법을 화살이 과녁을 비껴나가듯이 지키지 못하는 것이다.

죄는 하나님의 법을 스스로 완벽하게 지켜보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죄는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하고 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다.

죄는 나의 것을 하나님의 것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이다.

죄는 나를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이다.

죄는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다.

죄는 용서를 구하지 못하는 것이다.

죄는 교만한 것이다.

죄는 하나님 보다 먼저 앞서 가는 것이다.

죄는 하나님의 생각을 들을 시간이 없는 것이다.

죄는 하나님이 안계신것 같이 행동하는 것이다.

죄는 하나님이 계심을 순간적이라고 망각하는 것이다.

죄는 기도를 쉬는 것이다.

죄는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다.

죄는 _____ . (적어 넣어 보자)

마지막으로 죄에 대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원하심에서 0.0001%가 부족해도 죄이다. 그래서 죄는 너무도 무거운 것이다. 죄 때문에 우리가 겪는 모든 아픔과 슬픔이 있는 것이다. 죄는 정말 나쁜 것이다.

다윗은 죄에 대해 무엇이라고 했나? (시편 51 편)

우리는 죄를 죄로 알지도, 인정하지도 못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두 가지 예를 들어 본다. 첫째, 동성연애를 죄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죄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잘못되었다고 한다. (롬 1:27) 둘째,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것을 이 시대는 아무렇게나 보고있으며 오히려 순종을 요구하는 부모들에게 손가락질을 한다. (롬 1:30; 딤후 3:2)

이 두가지 예를 든 것은 우리가 죄에 대해 무감각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함부로 여길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죄를 죄라고 지적할 수 있어야 한다.